

## Radical Disciple III.

### 진짜 어려움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 1. 실패와 절망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실패와 절망의 순간은 모든 사람에게 어렵다. 왜냐하면 고통은 이야기가 아니라 '리얼'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의 순간에 인간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처음에는 고통 그 자체 때문에 힘들어 한다 (외부적 요소). 나중에는 고통의 원인과 본질에 대하여 질문한다. "왜 힘든 것이지? 원인이 무엇이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등 많은 질문들을 던진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인간의 능력이 넘어선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순간은 인간이 가장 연약해지는 그 때이다. 그러므로 고통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이트(문)'과 같다.

성경에서 본 고통의 원인은 분명하다. '죄'이다. 그런데 인간이 왜 죄를 지었을까? 원래 인간이 악해서 죄를 지었을까?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원인은 '악해서'이다. 인간의 악함은 무엇인가?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소이다.

죄의 결과 인생속에 '고통'은 필수이다. 고통없는 인생은 없다. 그런데 고통은 우리의 악함이 나타나는 장소이며, 그 곳 안에 하나님의 존재는 실재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주권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다.

#### 2. 고통이 주는 장소 '혼자의 공간'

고통의 시간이 내 삶에 만들어주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혼자의 공간'이다. 고통이 힘든 이유는 고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존재가 내 자신 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혼자의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이다. 그 순간 가장 연약한 나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여지는 외부의 화려함은 정확히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혼자의 공간'이다. 혼자의 공간에서 대면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가식도 없는 내 마음의 본능과 갈망만 남는 그 공간에서 내 모습은 분명해진다.

#### 3. 복음서의 제자안에 있었던 고통과 절망의 장소

[요한복음 21:3-4]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 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4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복음서의 제자들의 삶은 한 마디로 말하면 '실패와 절망'의 인생이다. 절망과 실패의 순간에 마주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 공간에서 그들은 자신의 실패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실망했다. 진짜 힘든 것은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힘든 것이다. 진짜 힘든 고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이다.

그 마음은 마치 수렁과 같다. 수렁은 움직일수록, 의식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공간이다. 수렁은 '기대치만큼 다다르지 못한 내 모습이 주는 실망감'이다. 내면안에 그 수렁이 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곳에서 나는 한 없이 무기력하기만 하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마음안에 수렁을 지니고 있다. 한 없이 무기력해지는 공간이 있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 4. 수렁에서 나오는 답은 하나이다.

[요한복음 21: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주님이 오신다. 베드로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에게, 도마에게 오신 것처럼 주님은 열심을 다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 오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를 돌보신다. 그물을 다시 던지게 하신다. 그물 한 가득 고기를 잡게 하신다. 소망과 절망이 가득한 인생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제자들이다. 제자들의 그물은 그들의 인생이다. 그 인생이 예수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초반을 지어 먹이신다.

그 수렁의 은혜를 경험해야 제자가 된다. 주님에 대한 소신과 확신이 분명해진다. 가장 강력한 관계는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만들어진다. 그 어려움이 함께 통과될 때 만들어진다. 오히려 깊은 수렁안에 꼭 잠겨 보아야 한다. 래디컬한 주문이다.

고통과 절망의 수렁안에서 평강을 느껴야 한다. 어떻게? 그 속에서 가만히 힘을 빼면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린다. 한 줄기 빛이 보인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경험해야 할 일은 수렁을 배우는 것이다. 힘을 빼는 법,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다.

#### 5. 바울과 실라 - 사도행전

[사도행전 16:22-25]

22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23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24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차꼬를 단단히 채웠다.

25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사도행전속에 나타난 고통과 수렁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는 달랐다.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었다.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제자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능력 자체를 쓰지 않는다. 대변하지도 않는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찬양한다.

복음서의 수렁을 넘어본 제자들은 이제 수렁을 어떻게 다룰지 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 멈추지 않는다. 명심하라. '마귀는 제자들의 환경을 묶을 수 있지만, 하늘의 영역을 가둘 수 없다. 즉 우리 내면을 가둘 수 없다'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제자들에게 수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다. 수렁 가운데 있는가?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하라. 수렁의 비밀을 알라. 수렁에 꼭 젖어있는 만큼 하늘의 능력은 더 큰 '무게감(임재, 카보드)' 으로 임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의 마음은 수렁에 갇혀있지 않다. 어느 누구도 네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 그 격려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 힘내서 예배하자.